

보도시점

배포 시

배포

2024. 8. 1.(목)

##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첫 회동

- 긴밀히 소통·조율하면서

시장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금융행정 추진해 나갈 것 -

-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일(8.1일)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.

\* (일시·장소) 2024.8.1.(목) 9:00 /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

-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우선 가계부채, 부동산 PF, 소상공인·자영업자 부채,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우리 금융시장이 당면한 4대 리스크 요인을 집중 관리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습니다.

- 또한, 글로벌 무역·산업 구조의 급변과 인구구조·기후·기술 등 메가트렌드의 변화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도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면서,

-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, 금융감독이 이를 뒷받침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 나가는 한편,
-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서민·소상공인 지원과 함께,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- 한편, 최근 위메프·티몬 사태와 관련하여,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판매자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면서,
-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.
- 마지막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의 본질이 “신뢰”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면서, 앞으로 긴밀히 소통·조율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금융행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강영수	(02-2100-2830)
		담당자	서기관	양병권	(02-2100-2831)
	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	책임자	국 장	김성욱	(02-3145-5900)
		담당자	팀 장	박상만	(02-3145-5940)

